

20/3  
n

ReNEW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 LEADERS

조장리뉴\_리뉴 안에 또 하나의 리뉴

# ReNEW HANDBOOK

ReNEW 2019  
10th Annual Conference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4시 - 28일(목) 오전 9시  
Sheraton Framingham Hotel & Conference Center, Framingham, MA

---

## 목차

---

201<sup>3</sup>  
 $\frac{1}{n}$

조장핸드북 목차	2	
ReNEW 소개/ 역사	3-7	
주제 설명문	8	
조장교육	1.조의 필요성, 개념, 중요성	9
	2. 조장의 역할, 멘토의 역할	9
	3/4. 조장의 준비, 조별모임 스케줄	10
	5. 모임 운영 원칙	11
	6. 조별모임 Tip	11
	7. (첫째날) 저녁 조별모임 내용	13
	8. Ice breaking 요령	13
	9. 나눔시간 운영 요령	14
	10. 조별 아침목상 인도 요령	15
	11. 기도하는 요령	16
	12. 집회 참석 요령	16
	13. 미혼조 해당 사항들	17
	14. 기혼조 해당 사항들	17
	15. 기타 조별 모임 운영 팁	18
	16. 상담프로그램	19
	17. 중보기도 프로그램	20
	18.행정 관련 안내 사항	21
	아침목상 자료	22-25
멘토/조장 조직	26-27	
본 집회 프로그램 일정표	28-30	
조장ReNEW 일정표	31	



17세기 이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있다. 1806년 당시 미국은 지금의 New England 지방을 중심으로 정착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청교도들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전파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대한 선교적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뉴잉글랜드지역 리치필드(Litchfield) 지방을 중심으로 영적 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신학교가 생기고 해외선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당시 대학 안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뉴잉글랜드 리치필드(Litchfield)의 부흥운동이 1805년 메사추세츠, 윌리암 타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이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1793년 세워진 윌리암스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 가운데는 James Richards와 1806년 신입생으로 들어온 사무엘 밀즈(Samuel J. Mills)가 있었고, 이들은 윌리암스 마을과 대학 안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게 된다.

그러던 1806년 8월 초 어는 토요일, 사무엘 밀

즈를 비롯한 다섯 명의 학생들은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늘을 보니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급히 소나기를 피해 근처에 있는 건초더미(Haystack) 아래로 몸을 피했고 그 곳에서 세계선교의 대한 비전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검은 구름은 지나가고 파란 하늘이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여름 내내 그 숲 속에서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이 기도회는 1987년 여름까지 계속됐다. 이것이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해외선교를 위한 첫 기도모임이었다.

### 학생 선교 동원 운동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그들 5인은 1808년 9월 7일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 모여서 이방선교를 위해 비밀리에 만든 '형제단 협약(The Constitution of the Brother)'에 서명한다. 그 후 그들은 이 비밀 형제단 모임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렸고 사무엘 밀즈를 비롯한 첫 기도모임의 5인은 윌리암스 대학을 졸업한 후 주변의 신학교와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으로 재입학 해서 세계선교에 동참할 학생 혼신자들을 확보해 갔다. 첫 기도모임의 5인 중 4명은 1810년 6월 28일 당시 브레드워드(Bradford)에서 열리고 있던 교단 총회에 찾아가 교회가 자신들을 해외선교사로 파송해 주기 위해 교회선교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 최초로 미국교회선교위원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가 만들어지고 2년 후에는 그들 중 3명과 또 다른 2명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 아시아로 떠난다. 그 후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이 선교 형제단을 통해 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에 동원되어 아시아와 인도로 나가게 됐다.

그중에 윌더(Wilder)라는 선교사가 있었다. 그는 오랜 선교활동 가운데 건강이 나빠져 1883년 경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그의 아

## 리뉴소개

들인 로버트 월더(Robert Wilder)는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로버트 월더는 사무엘 밀즈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학생 100명을 선교에 동원하기 위한 비밀모임을 만든다. 그는 당시 부흥사였던, D. L 무디를 부추겨 전국의 대표적인 기독 대학생들을 모아 성경집회를 하자고 제안하고 1886년 7월 1일-31일 헐몬산 수양회를 개최했고 그곳에서 존 모트(John Mott)라는 대학 2년생(로버트는 당시 대학 4학년생)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진다. 그들의 만남은 결국 학생 자원자 운동(SVM: Student Volunteers Movement)이라는 미국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생선교동원운동을 만들어 낸다.

1888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1930년 때까지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와 2만 5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상 최대의 학생선교동원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결국 건초더미 아래에서 시작된 다섯 명의 기도모임에 19세기 초의 미국선교역사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 뉴잉글랜드의 부흥의 물결이 땅끝, 한반도까지, 그리고 다시 뉴잉글랜드로

New England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이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 청년 선교 운동으로 흐름이 바뀌어지고, 그 부흥의 물결이 당시 땅끝이었던 한반도까지 밀려오게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와 하디 선교사의 헌신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장로교), 아펜젤러 선교사(김리교), 그리고 수 많은 청년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와서 한국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학생들과 청년, 여성들에게 복음과 참 교육을 주기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하였다.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교육과 복음으로, 무지했던 한국 청년들은 사회의 책임있는 지성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일제시대 항일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등,

한국의 현대 역사 속에서 한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발전을 주도해 왔다.

New England의 부흥의 물결과, 이를 통해 헌신된 선교사들로 인해, 한국의 청년들이 민족과 시대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참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중 적지 않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 직업, 이민 등으로 미국과 New England 땅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흥을 전달해 주었던 부흥의 진앙지인 New England과 미국 땅은 이제 더 이상 부흥의 땅이 아닌, 영적 어두움과 인본주의와 이성주의가 지배하는 땅으로 변화되어 있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ReNEW 청년 집회가 새로운 건초더미 기도 운동, 그리고 청년 선교 운동의 물결을 일으키어 보스턴, New England, 미국을 넘어 세계와 열방을 복음으로 새롭게 (ReNEW) 하는 부흥의 물결의 진앙이 되기를 기도한다. 과거 New England의 부흥의 물결로 인해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땅 끝의 한국 청년들이, 이제는 복음에 빛진자의 심정으로 200년전 부흥의 진앙지였던 New England 땅에서 그 부흥의 물결(Wave)을 다시 일으키기 (Revive)를 소원한다. Revive the New England Wave!

# 리뉴역사

rcKOSTA-BOSTON

## 새로운 세대의 부흥

2009년 10월 16일-18일, “새로운 세대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케임브리지한인교회에서 열렸다. rcKOSTA는 “Regional Conference”의 약자로 지역 코스타이다. 당시 25주년을 맞는 미주 코스타의 지역 코스타로 보스턴에서 열린 것이다. 2박 3일 동안 저녁 집회 형식으로 열린 이 집회에 연 인원 2,500명이라는 보스턴의 청년, 유학생들이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다. 국제 코스타의 이사장이신 흥정길 목사님을 주 강사로, 박용규 교수, 권지현 목사, 안종혁 교수, 이용규 선교사, 김도현 찬양 사역자 등의 강사들이 보스턴의 청년들을 섬겼고, 참석했던 청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열광하였다.

2nd ReNEW

##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2011 제 2회 ReNEW은 (2011. 8. 23-. 26),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주제로 열린 박 반석 (Jae Park) 목사, 황형택 목사, 권지현 목사, 허천희 목사, 권순영 박사, 조셉핀 김 교수, 조엔 리 소장, 송솔나무 찬양사역자 등의 강사님들을 통해 뜨거운 예배와 말씀, 실재적이고 전문적인 세미나, 소그룹과 상담 활동 등을 통해 깊은 은혜와 삶의 변화를 체험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2009

2010

2011

2012

1st ReNEW

## 크리스천, 세상이 준 이름

2010 제 1회 ReNEW 집회가 2010년 8월 24-27일, Regis College에서 “크리스천, 세상이 준 이름”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첫 ReNEW 집회를 통해 이곳 보스톤과 뉴잉글랜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흥정길 목사와 김동호 목사를 주 강사로, 유승원 목사, 권지현 목사, 임 흥섭 목사, 강석희 어바인 시장, 김명현 교수, 신주홍 아모레 퍼시픽 USA 사장 등, 수많은 강사들이 첫 ReNEW 집회를 통해 젊은 청년들과 함께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

3rd ReNEW

## 하나님의 나라

2012 제 3회 ReNEW 는 (2012. 8. 22-25)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 2012 ReNEW를 통해서 더욱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뉴잉글랜드 땅에 이루기를 기도했던 시간이었다.

## 리뉴역사

### 4th ReNEW 복음의 능력

2013 제 4회 ReNEW는 (2013. 11.28-11.30) 추수감사절 기간중으로 옮기고 장소를 Double Tree by Hilton Hotel in Denvers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복음의 능력” 주제로 민영기 목사, 신기영 목사, 권지현 목사, 하천희 목사, 정대성 목사, 김창근 목사, 김재원 아나운서, 권순영 장로 등의 강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통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이었고, 특히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권적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 4회 ReNEW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속에 이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 6th ReNEW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2015 제 6회 ReNEW는 (2015. 11.26-11.28) 추수감사절 기간중 Double Tree by Hilton Hotel in Denvers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라는 주제로 김형국 목사, 권지현 목사, 이주연 목사, 김진수 장로, 한종희 장로, 조동욱 선교사, 이정규 형제, 김건희 형제 등의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민하고 기도하는 집회였다.

2013

2014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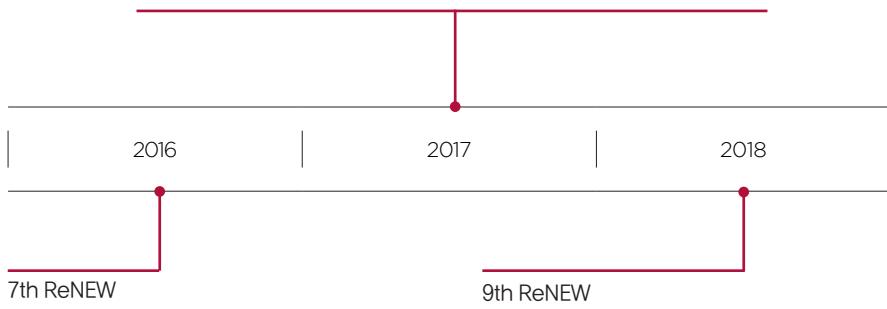
### 5th ReNEW 함께 걷는 사람들

2014 제 5회 ReNEW는 (2014. 11.27-11.29) 추수감사절 기간중 Double Tree by Hilton Hotel in Denvers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오대원 목사, 송병주 목사, 김도현 교수, 백소영 교수, 서명구 교수, 이규준 선교사, 김재원 아나운서, 최영환 대표 등의 강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 하는 시간이었다.

8th ReNEW

##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에클레시아

2017 제 8회 ReNEW는 (2016. 11.23-11.25) 새로운 장소를 옮겨서 Sheraton Framingham Hotel & Conference Center, Framingha에서 추수감사절 기간동안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노승환 목사, 박반석 목사, 전경호 목사, 이만열 교수, 하근수 목사, 이태후 목사, 이윤아 교수, 김천식 선교사, 흥종희 권사 등의 강사님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됨”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응하며, 함께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다.



2016 제 7회 ReNEW는 (2016. 11.23-11.25) 추수감사절 기간중 Double Tree by Hilton Hotel in Denvers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예수, 이 시대의 소망”라는 주제로 박성일 목사, 류인현 목사, 흥민기 목사, 김기학 선교사, 박상현 선교사, 이동영 대표, 조용완 선교사, 이태후 목사, 한종희 장로, 황진술 대표 등의 강사님을 통해서 가치 혼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대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을 닮아 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다.

2018 제 9회 ReNEW는 (2018. 11.22-11.24) Sheraton Framingham Hotel & Conference Center, Framingham에서 추수감사절 기간동안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프로클레이머스,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증인들”라는 주제로 최일도 목사, 김연수 대표, 황성수 목사, 김종철 변호사, 박진숙 대표, 박반석 목사, 이풀 목사, 김희선 교수, 허천희 목사, 정해균 목사, 이연승 교수, 윤재형 선교사, 김수우 교수, 김상일 작가, 김삼 교수 등의 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선포자로 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다.

# 주제설명문



그 이름

## THE NAME

ReNEW 2019 주제는 ‘그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처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그들의 전부였듯이, ‘그 이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부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복음이 우리 시대에 와서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적 (absolute)’이라는 말대신 ‘상대적 (relative)’이라는 말이 교회 안팎에서 힘을 얻으면서 복음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부터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야 한다.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산 길이요, 구원의 희망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에 흙되자 말자. 이번 ReNEW 2019 에 참석한 ReNEWer 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다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다.

---

# 조장교육

---

## 1. 조의 개념과 중요성

- 1a. '가족': 특히 '형제/자매들의 모임'
  - i.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집회에 참석하며, 조별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
  - ii. 우선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기뻐하는 모임 - 관계 지향적.
- 1b. '서당'이 아님:
  - i.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거나 토론하는 자리가 아님.
  - ii. 서로간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는 더더욱 아님.
- 1c. '자연스러운 배움터 - 별':
  - i. 스스로가 배운 것을 정리하고 내면화하도록 돋고
  - ii. 서로간의 나눔을 통해 새로운 관점이 자연스럽게 배워질 수 있는 자리.
- 1d. '존재론적 역할'
  - i. 많은 참가자들 but 익명의 관계들 (무관한 관계들)
  - ii. 인간의 개인적/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깊이 및 소속됨이 주는 안정감
  - iii. Personal한 care가 필요함 (신체적/정신적/관계적/감정적/지적)
- 1e. '기능론적 역할'
  - i. 많은 프로그램들 but 대부분 일방적인 communication
  - ii. 사람은 생각/감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쌍방향적일 때 더 잘 내면화함.
  - iii. 기타 집회 프로그램들과의 보완적 관계. 나눔터 및 interactive한 배움터의 기능
- 1f. '배의 키': ReNEW집회를 더욱 즐겁고 의미있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음.
- 1g. '인큐베이터': 불신자가 회심하게 될 수도 있고,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임.

## 2. 조장 및 멘토의 역할

- 2a. 조장의 역할
  - i. 사회자: 서로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도모하고, 개인적 특별한 필요를 채워준다.
  - ii. 조력자: 나눔을 장려하고, 모임을 진행시키고, 배운 것을 내면화하는 것을 돋는다.
  - iii. 가이드: ReNEW집회에 소속감을 제공하고, 여행 안내자가 된다.

---

## 2b. 멘토의 역할

- i. 조장들의 “조장”: 조장 ReNEW기간 중, 멘토별모임 리더.
- ii. 상담자: 조장 및 조원의 상담자. (신앙문제/이성문제/진로문제/관계 어려움 등)
- iii. 관찰자: 조모임을 돌아가며 참석하는 Observer (조모임 운영시 직접적 간섭 억제)

## 3. 조장의 준비

### 3a. 영적인 준비:

- i. 하나님의 섭리/경륜에 대한 확신
- ii.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및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 iii. 겸손하게 섭기는 기쁨 & 하나님의 임재/마음/뜻 추구

### 3b. 감정적인 준비:

- i.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확립 및 우월감/열등감에서의 탈출
- ii. 타인에 대해 기쁘게 수용하는 마음 - 정죄하는 마음 버리기

### 3c. 지적/기술적인 준비:

- i. ReNEW에 대한 이해 및 아침묵상 말씀 및 내용에 대한 이해.
- ii. 조모임 운영 내용 및 요령 숙지/연습
- iii.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

## 4. 조모임 스케줄/focus 이해

### 4a. 매일 저녁 조별모임 (첫째날: 10:00~11:30, 둘째날 11:00~12:00)

#### 4b. 그날의 모든 다른 프로그램이 끝나고 진행됨

- i. 첫째날 저녁 조별모임: 자기 소개, 집회 참석 기대하는 바, 기도제목 등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래 기도요령 및 ice breaking 게임 참조) 이율러 첫날 집회에 대한 소감 나눔도 같이 한다.
- ii. 둘째날 저녁 조별모임: 주로 그날 집회 참석에 대한 소감을 나눈다.
- iii. 마지막날 점심 조별모임: 모임 시간이 아주 짧고 결단의 내용들을 나눈다. 나눔과 동시에, 조장들은 필히 조원들 모두가 “조별 결단의 시간”을 작성하게 하고 겸어서, “평가서 제출함”에 넣는다.

#### 4c. 매일 아침 조별 아침묵상 모임: 아침식사 후 가장 먼저 시작되는 프로그램

- i. 하루에 한번씩 두번의 아침묵상 모임을 가지게 된다.
- ii. 말씀을 함께 읽은 후, 해석 설명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해를 공감한다.

#### 4d. 조장 ReNEW의 멘토별 모임과의 관계

- i. 저녁 조별 모임 및 조별 아침묵상 모임이 조장 ReNEW에서 동일하게 실천된다.
- ii. 저녁식사 / 멘토별 모임 in 조장리뉴: 첫째날 저녁 조별 모임 성격을 가지며, 동시

---

에 둘째날 아침목상의 내용을 함께 보기 때문에, 둘째날 아침목상 모임과도 연관이 깊다.

- iii. 아침식사 /멘토별 모임 in 조장리뉴: 조별 아침목상 모임에서 다루어지는 본문중 셋째날 본문을 다룬다.

## 5. 모임 운영 원칙

- 5a.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 i. 추천: 시작기도는 조장이 하고, 마무리기도는 돌아가면서 한다. 아니면 반대로.
- 5b. 조모임 운영 시간을 잘 지킨다.
  - i. 특히 집회 참석이 있을 경우, 중간에 적절하게 끝내고 다음 모임에서 이어간다.
- 5c. 조원들이 흘어지지 않게 한다. 세미나 후 조별 모임장소를 잘 정한다.

## 6. 조별모임 TIP

- 6a. 조원들을 기쁜 표정과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한다.
  - i. 조원들의 어떤 특정 외모/스타일을 두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 ii. 조원들의 말 한마디로 선입관을 가지지는 않되,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
- 6b. 조장은 적절하게 스스로를 open하도록 한다.
  - i.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도록 한다.
  - ii. 그러나 조장이 은혜 가운데서 먼저 마음을 열 때, 조원들도 마음을 연다.
  - iii. 지나친 open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와 조원들의 privacy를 보호한다.
- 6c. '티나지 않게' 조원들의 영적인 상태/수준을 파악한다.
  - i. 선입관을 가지지는 않으려고 하되, '돕기 위한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ii. 직접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대화하며 알아간다.
  - iii. 특별한 필요가 있는 조원이 있는지 알아보고, 필요시 멘토에게 연락한다.
- 6d. 전체 조모임의 분위기도 민감하게 파악한다.
  - i. 대개의 경우 저녁 조별 모임은 상당히 심신이 지친 상태일 수 있다.
  - ii. 너무 새로운 내용을 주입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iii. 조별로 구성원들에 따라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에 가능하면 맞추도록 한다.
- 6e. 조원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 i. 일부가 대화를 독점하지 않게 한다. 적어도 한 모임에 한번 이상은 말하게 유도한다.
  - ii. 대화를 지나치게 독점하게 될 경우, 다른 조원을 향해 '형제/자매님은 어떻게 보세요?' 등의 질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넘기도록 한다.

- 
- iii. 자신의 관점에서 '좋은 조원'을 선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각 사람을 바라본다.
  - 6f. 부정적/비판적인 조원들이 있을 경우
    - i. 동일하게 부정적/비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은혜를 주는 마음을 유지한다.
    - ii. 먼저 정확한 이유를 부드럽게 물어보고,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해준다.
    - iii. 또는 다른 조원들에게 '그럴 경우 형제/자매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하고 물어본다.
  - 6g. 깊은/어려운 질문이 나올 경우
    - i. "하나님이 존재가 증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죠?" "카톨릭은 이단입니다니까?" 등의 쉽고 짧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경우,
    - ii.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있나요?" "어떤 경위로 그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나요?"라고 살짝 물어보면서 의도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 혹시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그럴 경우 care하는데 집중한다.
    - iii. 질문 자체에 대해서는 먼저 조원 중에 답으로 섬기고 싶은 분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짧게나마 답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리고 가능한 한 멘토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조원에게는 "조별 모임에서는 나눔이 우선됩니다. 혹시 바로 알기 원하시면 멘토님을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말한다.
  - 6h. 정답보다 공감과 이해를 우선한다.
    - i. 두리뭉실한 정답으로 빨리 대화를 끝내지 않는다. "기도하시면 다 해결됩니다."라는 식의 대답은 최대한 아낀다. 거절감을 느끼고 분위기를 얼게 만든다.
    - ii.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고, 답을 내도록 유도하며, 만일 답을 얘기해야 할 때에도 가능한 한 조정보다는 조원들이 서로 듣게 한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또 도우려고 노력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6i. 단어의 정의가 중요하다.
    - i. 서로 나눔에 있어서 사용하는 단어의 뉘앙스나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만일 서로간에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편하게 재명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ii. 예) "영성"이라는 단어는 정의하는 사람 마음이다. 기도의 영성인지, 육상의 영성인지, 섬김의 영성인지, 좀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 6j. 부조장을 가능하면 세우도록 한다.
    - i. 좀더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를 같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좀 더 신뢰를 얻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
    - ii. 어려운 결정이 있을 경우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 덜 독선적으로 보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

## 7. (첫째날) 저녁 조별모임 내용

- 7a. 기도로 시작
- 7b. 자기 소개/ice breaking (아래 참고)
- 7c. ReNEW집회의 대 주제와 날짜별 주제를 상기시킨다.
- 7d. 조모임 시간 및 조별로 아침목상부터 저녁 조별모임까지 같이 생활함을 알린다.
- 7e. 우리 조 포함하여 2-3조를 담당해주시는 “멘토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어려운 질문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을 광고해준다 (첫째날 대부분의 멘토님들께서 조모임에 방문할 예정이심).
- 7f. 필요시 부조장을 세움. “멘토님”에게 어려운 질문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림.
- 7g. 나눔 시간 운영(아래 참고)
- 7h. 기도로 마치기
- 7i. (기도 후에는 해산하고, 조장리포트를 쓰고 잔다.)

## 8. Ice breaking 모형

- 8a. 방법1: 첫인상으로 짐작하기
  - i. 평소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첫인상을 이름 없이 다섯가지정도 적는다.
  - ii. 적은 종이를 투표때처럼 비밀리에 접어서 섞는다.
  - iii. (조장이) 한장씩 뽑아서 읽고, 하나둘~셋 하면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지목한다.
  - iv.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은 본인인지 아닌지 밝히고, 아니라면 밝혀질 때까지 계속 한다.
  - v. 밝혀지면 당사자는 왜 그런 첫인상이 생겼는지 추측을 말해본다.
- 8b. 방법2: 돌아가며 자기 소개하기
  - i.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름, 직업, 미래의 꿈(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들) 등을 나눈다.
  - ii. 이을러서 자신이 인상깊게 봤던 영화/책과 그 이유,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 가장 가보고 싶은 곳과 그 이유, 지금 가장 가지고 싶은 것과 그 이유, 가장 만나서 그 사람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과 그 이유 등을 나누어도 좋다.
- 8c. 방법3: 공통점 찾아내기
  - i. 조원들을 3-4명씩 한 조가 되게 하여,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게 한다.
  - ii. 예: 안경을 썼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모두 김씨이다 등.
  - iii. 반대로 전부 다른 부분들을 찾아도 좋다.
- 8d. 방법4: 말 더하기 게임
  - i. 첫번째 사람이 짧은 문장(두 단어로 된 것)을 말한다. (예: 하늘은 높다)
  - ii. 그러면 다음 사람이 그대로 말한 후, 한 단어씩 추가하여 말한다. (예: 하늘은 아주 높다.)

- 
- iii. 너무 길어져서 계속하지 못할 때까지 한다.
- 8e. 방법5: 이름 외우기 게임
- i. (손과 무릎으로 삼박자를 치면서 진행)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을 말한다.
  - ii. 한바퀴 돌면, 오른쪽 사람의 이름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오른쪽 사람을 말한다.
  - iii. 그래서 자기 이름이 오기 전까지 한다.
- 8f. 편한 대화에 도움이 될만한 질문들
- i.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or 기뻤던 (감사하게 생각하는) 순간은?
  - ii. 가장 좋아하는 활동 세 가지는?
  - iii. 자신과 가장 닮은 동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iv. 나를 음식에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 그렇게 생각한 이유?
  - v. 내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았던 말은?
  - vi. 내가 한 결정중에 정말 잘한 결정이 있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 vii. 혼자 집에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은?
  - viii. 당장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이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와 도시는? 왜?
- 8g. 신앙과 연관된 질문들
- i.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 ii.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 iii.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있다면?
  - iv.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 v. 나의 성격중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 vi.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 같나요? 어떤 계기가?

## 9. 나눔시간 운영

- 9a. 하루를 마치는 저녁 조별 모임에서 나눌 때 다음의 내용들을 나누도록 권한다.
- i.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깨달은 것들, 알게된 것들,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궁금한 것들, 어려웠던 것들 등.
  - ii. 말씀 속에서 좋았던/감사했던/다가왔던/재미있었던 것들 등
  - iii. 혹은 집회와 관련해서 불편했던 것들 등
- 9b. 가능하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되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 i. 주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인가?
  - ii.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꾸기를/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 iii.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 9c. 한 조원이 말할 때 다른 모든 조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돕는다.
- i. 신만한 것 같으면, 나눈 내용에 대한 적절한 질문들을 무작위로 다른 조원에게 물

---

어본다. “형제/자매님은 혹시 비슷하게 느끼셨/생각하셨나요?” 등으로.

- 9d. 한 조원의 나눔이 너무 길어지면, 정중하게 짜르던가, 요약을 부탁하던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 무리하게 짜르지는 않는다. 특히 본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껴진다면 더더욱.
  - 그러나 필요시는 짜르되, 기분나빠하는 것에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심어주도록 한다.
  - 횡설수설할 경우, 분명해지도록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좋다. 스스로가 생각할 시간을 더 준다고 생각한다.

## 10. 조별 아침묵상 인도요령

### 10a. 아침묵상 소개:

- 아침묵상은 아침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말씀의 일부분을 깊이 30분 내외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시간이다.
- 깊은 성경공부와는 다르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 내 삶의 적용점을 찾는데 주력하며, 지적인 이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ReNEW의 아침묵상시간은 아침식사와 함께 진행된다. 식사를 마친후 앉은 테이블에서(조장의 호텔방 혹은 호텔 내의 일맞은 곳) 진행하게 된다.

### 10b. 아침묵상 요령:

- 정해진 범위의 말씀을 2-3번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 특별히 마음에 와 달거나 깨달아지는 말씀 혹은 의문이 생기는 말씀을 메모한다.
-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
- 오늘 혹은 최근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기록한다.
- 한 구절에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 10c. 아침묵상 모임 운영

- 모임 장소는 일차적으로 식사를 진행한 테이블에서 한다. 좀 더 조용한 분위기에 서 하기를 원한다면 조장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모임을 진행해도 좋다.
- 기도로 시작한다.
- 먼저 아침묵상가 무엇인지 모르는 조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렇다면 설명해준다.
- 대개의 경우 아침묵상시간의 절반 내지는 2/3 정도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고, 나머지의 시간에 같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느낀 것을 솔직하게 나눈다.
- 이때 너무 멀리 흘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간을 정해서 나누는 시간을 시작한다.
- 문제 수가 적으면 한 문제를 2-3명이 연속해서 나누게 하고, 문제 수가 많으면 문제를 선택해서 해도 된다.

- 
- vii. 반드시 모든 조원이 한번의 아침묵상시간에 한번 이상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침 시간에 잠이 덜 깐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답을 달기 어려워하는 조원도 많이 있음을 이해한다.
  - viii.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친다.
- 10d. 만일 늦잠으로 아침묵상 모임에 못 올 경우
- i. 모임 시간의 5분 혹은 10분을 정해서 다 모일때까지 기다리다가 시작한다.
  - ii. 성별로 한사람씩 기상조장을 세워 책임지고 깨워오게 한다.
- 10e. 아침묵상 나눔시 주의할 점들
- i.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떠오르더라도, 적용 부분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일 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즉, 자기 자신 속에서 고치거나 해야 할 일을 살핀다.
  - ii. '가르침'이 아니다 - '오늘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혹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 iii. '인용'을 억제한다. - '오늘 본문을 두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를 기금적 하지 않는다.
  - iv. '권면 금지' - '여러분도 제가 깨달은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v. 본문과 상관없는 나눔은 가급적 삼간다 - '요전의 경험… 깨달음… 을 나누고 싶습니다.'

## 11. 기도하는 요령

- 11a. 아래의 방법을 적절히 선택/섞어서 하면 된다.
- 11b. 순서별 기도: 돌아가면서 모든 조원들이 한 사람씩 기도한다.
- 11c. 그룹식 기도: 조원들을 2-3명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 안에서 순서별 기도를 하게 한다.
- 11d. 짹기도: 짹을 지어 기도하게 한다.
- 11e. 전체통성기도/묵상기도: 전체가 같이 소리내어 한다.
- 11f. 대표기도: 한 사람이 기도한다.
- 11g. 위임식 기도: 조장이 2-3명을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며 기도한다.
- 11h. 대화식 기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주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짧게 돌아가며 기도 한다.

## 12. 집회 참석 요령

- 12a. 맨 처음 집회 참석 전 조별 모임시, 조별로 같이 모여서 집회를 참석하도록 권한다.
- 12b. 같이 참석하는 것은 조별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집회 참석시 좀더 안정감을 준다.
- 12c. 조장이 '티나지 않게' 조원들의 상태를 살피고, 특별한 필요를 신속히 감지하여 대응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 
- 12d. 예를 들면, 특정 강사의 말씀 후 고민에 빠지거나, 힘들어 하거나, 이해를 못해서 불만스러워하거나 등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다가가 “방금 전 말씀은 어땠어요/어떻게 생각해요?”하고 물어볼 수 있다.
  - 12e. 기도를 원한다고 말하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 “기도해드릴까요?”하고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12f. 집회 기간 중, 조원들 중 일부가 집회 참석을 기피하려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 13. 미혼조 해당사항

13a. 미혼조는 조별 모임을 조장 방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b. 식사 관련

13c. 기타

- i. 어떤 조원이 같은 조 혹은 다른 조의 누군가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죄하지는 안되, 조의 분위기를 너무 흐리지 않도록, 집회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혹은 개인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때 하면 좋다
- ii. 조모임시 조의 분위기를 잘 살피되, 보통은 미혼남녀가 옆에 가까이 앉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 티나지 않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 iii. 보통 조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 조장의 성별과 상관 없이, 어느 한쪽으로 분위기가 너무 주도되지 않게 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모두 포용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
- iv. 조원 중에 특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티내지 않도록 하며, 동일하게 조원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좋은 방법은, 모든 조원들을 한 가족의 형제/자매 - 사촌형제/자매로 보는 것이다.
- v. 어떤 조원이라도 그 사람이 이미 사귀는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귀더라도 그것을 드러내는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고, 예를 들면 ‘이상형’을 묻는 질문 같은 것들이 곤란하게 여겨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14. 기혼조 해당사항

14a. 기혼조는 조별 모임을 남편과 아내들이 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 아내들은 조장 방에서 조별 모임을 진행하고, 남편들은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조별 모임을 진행한다.
- ii. 아이들은 너무 어릴 경우(둘 이하) 아내분이 담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편분들이 데리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b. 남편과 아내가 같이 모이는 경우

- i. 조장이 조원들의 의견에 따라 flexible하게 같이 모일 수 있다.
- ii. 마지막날(금요일) 저녁 조별 모임도 같이 모일 수 있다. 이때에는 결단의 시간으

---

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별로 없다.

- iii. 아침 조별 아침묵상 모임도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눔시간은 반드시 따로 하도록 한다.

14c. 자녀 관련

- i. 자녀로 인해서 조모임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자녀가 계속 힘들어할 경우,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가며 맡도록 한다.
- ii. 자녀를 pick-up하고 또 어린이 ReNEW에 맡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한 자녀와 함께 자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4d. 식사 관련

14e. 임신하신 분 관련

- i. 임신한 분은 식사나 휴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14f. 기타

- i. 가급적이면 남편분들이 아이들을 맡도록 하여 평소 아내가 받지 못하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 ii. 기혼조는 ice breaking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배우자로 인해 쉽게 자신을 open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필요를 못느낄 수도 있다. 조장이 부부별 영적 상태 및 특징을 잘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 iii. 집회 기간 중에도 부부싸움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다. 조장 및 조원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드리도록 한다.
- iv. 만일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모이는 조별모임에서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다.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적 성숙을 이루시고, 가정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일 뿐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부부들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고, 서로를 위해 더 깊이 기도해줄 수 있다. 또한 서로간에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찾았던 것들을 나누게 한다. (무엇이 가장 나은지는 스스로가 판단하게 한다.)
- v. 문제를 나눌 때, 배우자가 서로를 '비방하는' 태도가 아니라, 힘들었던 부분을 나누되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vi. 초신자인 배우자가 있거나 신앙의 색깔이 다른 부분의 경우, 상담을 권유하거나 적절한 세미나를 추천할 수 있다. 상담은 '만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게 도와준다.
- vii. 기혼조의 경우 아침 조별 조별 아침묵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 아이들로 인해 잠을 잘못 잘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 15. 기타 조별운영 팁

15a. Life sharing

- 
- i. 조별 아침묵상 모임이나 저녁 조별 모임 이외에도 조별로 같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남는 편이다. 이때,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상황이 허락되면 나름대로 일차게 보내도 좋다.
  - ii. 한가지 추천하는 것은 life sharing이다. 각 조원이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나누게 해준다. 태어난 곳,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꿈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고, 신앙체험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했고, 언제가 좋았고, 언제가 힘들었고 등등을 나눈다.
  - iii. 이것을 하려면 조장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만 조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좀더 쉽게 자신의 삶을 열 수가 있다.
- 15b.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 i. 조원들 중에 같은 교회나 학교, 전공, 출신 등등으로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외'되는 '소극적'인 사람이 생길 수 있다.
  - ii. 조장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조장이 '모두가 함께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15c. 신앙이 가장 약한 사람 기준으로 운영한다.
- i. 조원들 중 초신자나 혹은 불신자가 있다면, 이들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맞추어준다. 어려운 '신앙' 단어들이나 개념들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고, 대화 자체를 좀 천천히 해야 할지도 모른다.
  - ii. 이러한 '약한' 분들은 스스로 모르는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을 '자기만 모르는구나'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질문하기 쑥스러워할 수도 있다. 혹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 15d. 멘토/강사분들 초대한 식사시간
- i. 멘토들은 돌아가며 조별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ii. 식사시간에는 멘토들이 역시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장이 조원들과 얘기한 후, 특정 강사분을 미리 만나뵙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여쭙고 특정 장소를 지정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
  - iii. 이 때 멘토가 같이 식사해도 좋고, 멘토가 다른 조를 선택해서 같이 식사를 해도 좋다.

## 16. 상담팀 프로그램 (상담팀 부스)

- 16a. **개인상담:** 개인 상담 ReNEW 2019 의 개인 상담은 원하시는 상담 내용에 맞추어 준비된 상담자를 연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의 분야는 신앙 생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진로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개인의 소소한 고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Online 상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면 상담팀에서 더욱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서 작성은 아래의 링크나 ReNEW App 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전체 집회 장소 앞에 마련된 상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서 링크 [www.renewusa.org/counsel](http://www.renewusa.org/counsel)

- i. 개인상담 신청은 ReNEW App 을 통해 사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집회 시작 후에는 ReNEW App 및 상담 데스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의 신청자리가 모두 찻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ii. 개인상담 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외: 개인상담 조언자가 follow-up 제안시)
  - iii. 개인 상담은 전체 집회 시간을 제외한 목 12:30PM-7PM, 금 8AM-7PM, 토 8AM-3PM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전체집회 시간은 제외)
- 16b. 상담 데스크 안내
- i. 상담 데스크 운영 시간: (목) 9AM-3PM / (금) 7AM-7PM / (토) 7AM-4PM
  - ii. 개인 상담 예약의 변경/취소는 상담 데스크에서만 가능합니다.

## 17. 중보기도 프로그램

17a. 중보기도팀 운영과 광고사항

- i. 중보기도실은 새벽예배 이후부터 저녁 예배 전까지 운영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있는 전체집회 시간에는 중보기도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참가자들께서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기도제목은 기본적으로 비밀로 유지되며 필요하신 경우 특별히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iii. 중보기도실에서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기도를 받고 싶은 분들에게 개인기도가 제공됩니다.
  - iv. 개인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중보기도 신청 시, 개인기도 필요 여부와 원하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v. 이 개인기도를 위한 중보기도팀은 목회자와 사모님 그룹으로 형성될 것이며, 개인프라이버시를 보장해 드립니다.
  - vi. 중보기도 요청 방법
    - 중보기도함 이용 (중보기도실 앞에 배치)
    - ReNEW 2019 App 이용 Prayer Request -->기도 요청 기입 --> Submit
    - 요청하신 기도제목은 중보기도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 17b. 집회기간 동안 중보기도 제목
- i.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16)
  - ii. 모든 강사님들의 성령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31)

- 
- iii. Kids & Youth ReNEW에서도 동일한 성령께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도록 기도합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밀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요엘 2:28)
  - iv. 보스톤 지역과 뉴잉글랜드 지역 교회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낫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 17c. 권장하는 것은 조별로 리뉴기간중 1번은 조원들과 다함께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매 집회 15-20분 전에는 집회를 인도하시는 강사님들과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그 시간도 추천한다.

## 18. 행정 관련 안내사항 (집회참석관련 포함)

- 18a. 본 집회 중 멘토별 모임
  - i. 본 ReNEW 집회 기간 중 멘토별 (한멘토 + 2-3조장) 짧은 모임을 하루에 한번정도 하기를 권장한다. 멘토별로 조장들과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미리 약속된 장소에 모여 5-15분간 모임을 가져도 된다.
  - ii. 모임의 목적은 조장들로 하여금 제안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혹은 멘토나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는 시간이다. 또한 격려를 해주고 교제를 나누는 면도 있다.
- 18b. 조장매일 report
  - i. 조장은 매일 밤, 모든 프로그램(조별모임 포함)이 끝난 후, 조별 report를 작성하고 잔다.
  - ii. 이 report는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멘토에게 전달한다.
  - iii. 이 report에는 크게 두가지 사항을 적는데, 하나는 영적인/관계적인 면에서 조별 분위기, 기도제목, 주목이 필요한 사항/조원들에 대해 적는다. 아울러 불신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적고, 멘토에게 알려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 iv. 또 하나는 행정적인 사항들이다. 질문이나 애로사항/어려운 면들을 적는다.
- 18c. 시간업수
  - i. 조모임으로 인해서 본집회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조장은 자주 시계를 보도록 한다.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히 잡고 이동하거나 식사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
  - ii. 특별히 아침식사와 함께 하는 조별모임 이후에는, 조장이 조원 모두를 잘 이끌어서, 9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는 “크리스천의 삶”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함께 이동한다.

# 29

Friday



마태복음 Matthew 1:21-23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1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22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23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Immanuel”—which means, “God with us.”

## 오늘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창조자가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해서 그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몽둥이의 성자라고 불리던 다미안 신부는 나병 환자들을 사랑함으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에게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에게 계시기에 그 곳이 하늘입니다. 주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에게 계신 곳, 그 곳이 하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하늘이 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이 하늘 되지 못함은 임마누엘,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삶을 꿈꿀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단지 ‘그 이름’, 예수 그 자체입니다.

## 묵상 길잡이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일관성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닥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선명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스케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20)는 약속으로 매듭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이 주는 의미를 더욱 깊게 묵상해 봅시다.

## 묵상 질문

-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 이름은 누가 부르는 것이죠?
-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나요?

## 적용 질문

-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0

Saturday

##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Luke 11:1-4

1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 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 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1 One day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2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3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4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인간 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상하구조가 (승자와 패자, 혹은 갑과 을의 관계 등) 복잡하게 얹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싸움터 같습니다.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선, 출퇴근 전쟁, 전철 대란, 금융 전쟁, 살과의 전쟁, 사랑과 전쟁 등이 있지요. 전쟁에는 싸우는 사이가 있습니다. 원수 지간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모습이고, 이런 싸움 속에서 기도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행위이며, 이런 경쟁 속에서 작지만 나의 것을 쪼개어 나누려 노력하는 모습이 영적인 삶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전쟁같은 이 세상,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더불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들의 죄로 멀리 나뉘어 졌지만 이제는 가까이 통하는 사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나아가 우

---

리 사람들로 서로 좋은 관계, 좋은 사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만한,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온전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때 비워지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기도의 응답 또한 채워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 목상 길잡이

우리는 과연 이 주기도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주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신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주의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닌, 예수님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그 의미와 뜻을 되새기며 하는 기도가 아닌, 예배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나 그리고 종교 개혁의 시기에도 본질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의 중심에는 주의 기도를 배우고 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는 주의 기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그 뜻을 알아가며, 그분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교회의 회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금 주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

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목상 질문

-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 우리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혹시 그 핵심은 한마디로 ‘복 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닌가요?
- 주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나요?
- 주기도를 드리며 이웃과 화해하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 적용 질문

- 주기도를 되새김해 볼까요?
- 오늘 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인지 점검해 볼까요?
-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난 모든 욕심과, 시험과 다만 악에서도 구하실 ‘그 이름’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구세주) 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한 번 연습해 볼까요?

## 맨토/조장

교육팀장: 최해순	857-222-8748	doublesun81@gmail.com
교육 부팀장: 배수찬	857-869-4222	soochan@hotmail.com

멘토	조장
<b>박세영</b> saeyoung.park1@gmail.com 205-243-9698	S 1 조인영 S 2 전민경
<b>이윤지</b> ylee28@berklee.edu 646-407-5022	S 3 백참빛 S 20
<b>이진희 목사님</b> eejinhee@gmail.com 617-513-2820	S 4 하찬영 S 5 이소형
<b>신현진</b> ulexis.mlhm@gmail.com 512-658-7570	S 6 박준배 S 7 김수민
<b>송상일</b> salitank2@gmail.com 857-540-8849	S 8 홍예림 S 9 신메예
<b>배수찬 권사</b> sbae1@bidmc.harvard.edu 857-869-4222	S 10 김상진 M 1 M 3
<b>류은영</b> glory2177@gmail.com 857-242-8676	S 11 이충만 S 12 최동성

## 맨토/조장

멘토	조장	
<b>이현희</b> huyna2@gmail.com 857-366-0941	S 13 S 14	류재윤 김수아
<b>홍종희</b> afdental@hotmail.com 781-367-9687	S 15 S 16 M 6 M 8	김경은 이주옥 박은희
<b>남상민</b> heyngsun@gmail.com 339-927-0256	S 17 S 18	신수경 김인찬
<b>성무제</b> moojesung@gmail.com 617-686-3067	S 20 M 5 M 7	배솔로몬 허 훈
<b>고은경</b> eun.2ky@gmail.com 213-700-1800	M 2 M 4	
	M 9 M 10	성기주 김정민

# 28

Thursday

<b>9:00 - 10:15</b>	집회 Check-In
<b>10:30 - 11:45</b>	개회 집회
<b>11:45 - 12:00</b>	오리엔테이션
<b>12:00 - 1:30</b>	Lunch
<b>1:30 - 2:00</b>	Check-In
<b>2:00 - 3:15</b>	세미나 1
<b>3:15 - 3:30</b>	Break Time
<b>3:30 - 4:45</b>	세미나 2
<b>4:45 - 5:30</b>	Break Time
<b>5:30 - 7:00</b>	Dinner
<b>7:00 - 7:50</b>	크리스천의 삶
<b>8:00 - 9:30</b>	저녁 집회
<b>9:30 - 11:00</b>	조별모임

# 29

Friday

---

6:30 - 7:15	새벽기도회
7:15 - 9:00	Breakfast & 조별QT
9:00 - 9:50	크리스천의 삶
10:00 - 11:45	오전 집회
11:45 - 12:00	광고 및 안내
12:00 - 1:30	Lunch
1:30 - 2:45	세미나 3
2:45 - 3:00	Break Time
3:00 - 4:15	세미나 4
4:15 - 5:30	Family time / 조별모임 / 목회자 세미나
5:30 - 7:00	Dinner
7:00 - 7:30	10th ReNEW Celebration
7:30 - 9:30	저녁 집회
9:30 - 10:15	찬양 & 기도의 밤
10:15-11:30	조별모임

---

---

# 30

Saturday

---

6:30 - 7:15 새벽기도회

7:15 - 9:00 Breakfast & 조별QT

9:00 - 9:50 특강

10:00 - 11:45 오전 집회

11:45 - 12:00 광고 및 안내

12:00 - 1:00 Lunch

1:00 - 1:30 Check-Out

1:30 - 3:30 폐회 집회

3:30 - 4:00 성찬식 및 폐회선언

---

# 2019 조장ReNEW 일정표

시간	11/27일 (수)	11/28일 (목)
7:00		기상 및 세면
7:30~8:30	리뉴 안에 또 하나의 리뉴 _ 조장리뉴	아침식사 (집회장소 및 세미나실 활용) 팀별 아침묵상 (QT)
8:30~9:00		기도 및 ReNEW 팀별 오리엔테이션 광고 (상담팀, 세미나팀, 도서팀, 중보기도팀)
9:00~10:00		본집회 등록 (조별집결 및 집회장소로 함께 이동)
2:00~3:30		ReNEW 2019 10:30 개회예배로 시작!
3:30~4:00	도착 및 준비기도	
4:00~4:30	개회예배 & 격려 말씀 (김태환 목사)	
4:30~5:30	Welcoming / 조장멘토 환영 Ice-breaking time	
5:30~6:30	소그룹 운영 워크샵 (팀별)	
6:30~7:30	멘토별 저녁식사 (1. 삶나눔, 2. 친교)	
7:30~8:15	아침묵상 가이드 Q&A / 주제 말씀 (최해순 목사)	
8:15~9:00	찬양과 기도회 (찬양 20' / 기도 20' / 블레싱)	
9:00~10:30	팀별 조모임 (취침하시는 조장/멘토)	

# ReNEW

2019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

## CONTACT US

Kakao ID : renewboston  
ReNEW App : Contact Us  
Email : support@renewusa.org